



시카고 조리대 제조업체 규폐증으로 100만 달러의 벌금 직면

출처 OSHA National News Release. August 26, 2024.

(www.osha.gov)

번역 김효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국 차장

미국 시카고 연방 안전 검사관들은 시카고의 조리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31세)이 급성 규폐증¹⁾을 앓아 양쪽 폐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즉시 회사가 놓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만,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검사 결과 노동자들은 허용 한도보다 최대 6배 높은 수준의 실리카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관들은 공기 샘플링을 위해 2024년 2월 플로렌자 대리석 & 화강암 코퍼레이션(Florenza Marble & Granite Corp.)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직원들이 작업 공간 전체에 걸쳐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일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필요한 호흡기 보호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직원들이 주거 및 상업 프로젝트로 엔지니어링 및 천연석 조리대를 자르는 동안 실리카 노출을 줄이기 위한 통제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OSHA는 양쪽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외에도, 그의 아버지(59세)와 동료도 규폐증과 관련된 폐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른 직원(47세)은 3년 이상 직장 관련 폐질환을 치료받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회사와 소유주인 브래드 카프(Brad Karp)는 직원 6명의 건강을 보호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 보상 보험사 두 군데에서는 2022년과 2024년에 작업환경측정 결과²⁾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노동자 보호를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규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기대 수명이 약 11년 감소하며, 폐 이식 후에도 15년 이상 살 확률이 11% 미만이라고 추정했습니다. OSHA 시카고 지역 관리자 빌 도노반(Bill Donovan)은 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실리카 먼지 수치가 허용 수치보다 거의 6배 높았고, 사업주는 직원들을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두 보험사가 직장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해고한 후에도 직원들을 보호할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OSHA는 플로렌자 대리석 & 화강암 코퍼레이션을 심각한 고의적 위반 8건, 고의적 위반 4건, 심각한 안전 및 건강 위반 20건으로 기소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규폐증을 앓고 있는 두 노동자는 영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지 못했고, 고용주로부터 실리카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개인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³⁾



OSHA가 발견한 구체적인 고의적 위반 사항

- 실리카 노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했다.
- 노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학적 감시를 수행하지 않았다.
- 실리카 먼지를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공학적 및 행정적 통제가 부족하다.
- 작업자를 TLV 이상(노동자는 안전하지 못한 수준) 실리카 먼지에 노출시켰다.
-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구현하지 않았다.
- 또한 해당 기관은 청소 부족, 호흡기 결함, 실리카 노출 관리 계획 및 위험 전달 프로그램 부족, 직원을 대상으로 압축 공기 사용에 대한 교육 미실시 및 부적절한 사용 허용 등과 관련된 심각한 위반 사항 20건을 확인했다.

1) 원문 : silicosis, 산업보건학 인용

2) 원문 : 공기 샘플링